

咳嗽의 辨證論治에 關한 考察

朴重陽 · 金炳卓*

I. 緒論

咳嗽은 呼吸器系疾患에서 나타나는 代表的인 症候中의 하나로 臨床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一年내내 觀察이 可能하고 특히 季節의 으로는 겨울과 봄에 더욱 많이 나타난다.

咳嗽은 원래 肺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 그러나 五臟六腑의 疾病이 모두 肺에 影響을 미치어 咳嗽을 發하게 하는 例가 있으므로 咳嗽을 診察할 때는 詳細한 觀察에 依하여 主因과 副次的 病因을 뚜렷이 糾明하여야 한다.

咳는 有聲無痰을 말하며 肺氣가 傷하여 不清한 것이며 嗽는 有痰無聲을 말하며 脾濕이 動하여 痰이 된 것이며 咳嗽은 有聲有痰한 것으로 傷肺氣하고 脾濕이 動한 故로 咳와 嗽가 兼한 것이다. 肺氣가 動한 卽 咳가 發하고 脾濕이 動하면 嗽가 發하며 肺脾二臟이 같이 動하면 咳嗽가 發한다.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咳嗽論>에서 “咳嗽爲有痰有聲, 盖因傷于肺氣, 動于脾濕, 咳而爲嗽也”라고 하였고 <醫學入門 辨咳嗽>에서 “咳因氣動爲聲, 嗽乃血化爲痰, 肺氣動則咳, 脾濕動則嗽, 脾肺俱動則咳嗽俱作”이라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內經에서는 <素問 咳論>에서 “五臟六腑皆令人咳 非獨肺也”라 하며 五臟六腑의 機能의 失調가 모두 咳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고 五臟咳의 症狀를 技術하였다. 또한 五臟의 久咳가 六腑로 옮기어 咳嗽을 發하는 것으로 보았다. <諸病源候論>에서는 咳嗽을 風咳, 寒咳, 支咳, 肝咳, 心咳, 脾咳, 肺咳, 腎咳, 痰咳, 厥陰咳의 十種으로 나누었고 張從正은 <

儒門事親>에서 寒邪만이 咳嗽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外因六氣가 모두 咳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張介賓은 <景岳全書 咳嗽篇>에서 諸家の 太繁한 入論을 批判하고 咳嗽을 外感과 內傷의 두종류로 나누어 그 病理過程을 論述하고 辨證의 原則을 세웠는데 지금도 臨床에서 이를 따르고 있다. 葉桂는 <臨證指南醫案>에서 咳嗽의 治療原則을 자세히 說明하였다.

II. 本論

咳嗽은 肺臟疾患에서 나타나는 主要한 症候中의 하나로서 發生原因은

- 1) 形寒飲冷한 卽 傷肺하고 傷肺한 즉 咳嗽을 發한다.
- 2) 肺에 寒邪나 濕邪가 侵入하면 咳嗽을 發한다.
- 3) 周身の 氣가 虛하거나 肺氣가 有餘하면 咳證을 發한다.
- 4) 肺의 皮毛가 寒邪에 傷하거나 熱中하게 되면 咳證을 發한다.
- 5) 肺腎之氣의 上下不交에 依하여 咳證을 發한다.
- 6) 先天的으로 肺의 位置가 높으면 咳證을 發하기 쉽다.
- 7) 誤刺에 依하여도 咳證을 發한다.
- 8) 秋傷於濕하면 冬必咳嗽한다.

外感과 內傷의 區別

外感咳嗽

發病이 比較的 急하다. 病의 科程은 比較的 짧다.

다만 風痰咳嗽은 比較的 길다.

대부분 實證에 屬한다(邪實)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敎室

症狀에 惡寒, 發熱, 頭痛 등 表證을 同伴할 수 있다.

內傷咳嗽

發病이 緩慢하고 病程이 오래 가며 反復해서 일으키며 表證이 없다. 虛實夾雜의 症狀을 보이는데 本虛標實한 것이다.

<外感咳嗽>

1. 風寒咳嗽

風寒外束하여 肺失宣降하여 發한다. 外感風寒에 感受되면 內로는 肺에 습하여 氣道에 물滯되어 肺氣不能宣暢하게 되므로 咳嗽痰稀, 喉痒聲重, 頭痛鼻塞, 發熱惡寒, 脈浮無汗한 症狀들을 나타내게 된다.

症狀 : 咳嗽痰稀, 喉痒聲重, 鼻塞流涕, 或兼頭痛, 發熱惡寒, 無汗出, 舌苔薄白, 脈浮或浮緊

治法 : 疏風散寒 宣肺止咳

治方 : 杏蘇湯, 蓼蘇飲, 三拗湯, 五拗湯, 金沸草散

2. 風熱咳嗽

風熱犯肺하여 肺失宣暢하여 發한다. 風熱犯肺하면 熱灼津液爲痰하는 故로 咳嗽痰稠咳而不이한 症狀이 나타나며 肺熱耗津하면 口渴咽痛하게 된다. 風熱이 表邪에 侵犯하면 身熱, 惡風, 頭痛, 汗出 等症이 나타난다.

症狀 : 咳嗽痰稠, 咳而不爽, 口渴咽痛, 身熱, 或頭痛, 惡風, 汗出, 苔白而燥, 脈浮數하다.

治法 : 疏風清熱, 宣肺止咳

治方 : 桑菊飲, 清金降火湯, 瀉白散, 柴梗半夏湯, 麻杏甘石湯, 竹葉石膏湯

3. 風燥咳嗽

燥熱傷津하여 肺失清潤하여 發한다.

風燥外傷하거나 或은 表邪化熱하면 肺津을 灼傷시켜 乾咳症을 發하게 한다. 燥勝한즉 鼻燥咽乾하게되고 만약 肺絡을 損傷시키면 痰中帶血한다. 또한 咳症이 頻發해지고 甚하

면 胸痛도 나타난다.

症狀 : 乾咳無痰, 或痰少不易出, 或痰中帶血, 鼻燥咽乾, 咳甚則胸痛, 大便乾燥, 小便黃少, 舌紅苔薄黃而乾, 脈數大하다.

治法 : 清熱生津, 潤燥救肺

治方 : 清燥救肺湯

<內傷咳嗽>

1. 脾虛痰濁

症狀 : 咳嗽反復 痰多色白質粘 或稠成塊 但易咳出 胸悶 肢體困重 食慾不振 大便 舌有齒痕 苔厚하다.

治法 : 健脾燥濕 化痰止咳

治方 : 六君子湯 合 三子養親湯 合 止咳散 加減

2. 肺腎陰虛

症狀 : 乾咳無痰 或痰少而粘 面紅潮熱 口鼻乾燥 惡熱 咳嗽則胸痛 心煩失眠 尿黃便結 舌紅苔少 脈細數

治法 : 滋養肺腎 潤燥化痰

治方 : 百合固金湯加減 麥門冬湯

3. 脾腎陽虛

症狀 : 咳嗽兼喘 胸悶氣促 咳清稀痰 動則心悸 食少腹脹 惡寒肢冷 夜尿增多 午後足이浮腫 舌突 有齒痕 苔白滑 脈細數

治法 : 健脾溫腎 納氣平喘

治方 : 金 腎氣丸 合 六君子湯加減 加味鎮咳湯

III. 結 論

1. 概念 : 咳嗽는 肺系疾病에서 常見되는 主要한 症候中の 하나로서 咳嗽가 主된 症狀일때 咳嗽로 診斷하기 위해서는 肺癰, 肺, 肺脹 等으로 咳嗽를 同伴한 것을 排除해야 한다.

2. 病因病機 : 外感과 內傷으로 나눌 수

있다. 外感은 六淫犯肺하여 咳嗽을 發하는 것이고 內傷은 臟腑機能이 失調되어 肺失宣肅, 肺氣上逆하여 咳嗽을 發하는 것이다.

3. 治療原則 : 外感과 內傷으로 나누어 邪氣와 正氣의 虛實을 보아서 治療해야 한다. 外感新病의 邪實한 것은 祛邪利肺하고 內傷久病에서 邪實正虛한 것은 祛邪止咳하며 兼하여 扶正하고 正虛한 것은 補肺養正한다.

4. 臨證要點

1) 外邪犯肺하여 轉化하는 것은 相應施治한다.

① 風寒客肺하여 化熱하지만 表寒未解하여 外寒內熱의 症狀을 보이면 解表清裏之法을 쓴다.

② 風寒化燥하면 清法을 쓰고 風熱化燥하면 潤而兼清의 法을 쓴다.

2) 內傷咳嗽로 邪實正虛하면 關係臟器를 考慮하여 治療한다

① 火大咳嗽로 灼傷肺陰하면 清養之品을 配合하여 陰津虧耗를 防止한다.

② 痰濕咳嗽로 肺腎之氣를 傷하면 補益脾氣之品을 配合하여 肺氣虛寒이나 寒飲上肺를 防止한다.

3) 治療의 禁忌

外感에서는 斂滯留邪하는 것을 忌하는데 去邪하면 正安하게 된다. 內傷에서는 宣散하여 傷正하고 耗氣傷陰하는 것을 忌하는데 正氣를 調護하면 久咳로 肺損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 注意하여 症狀을 살피 原因을 찾아야 하고 辨證과 辨病을 結合하여 治療해야지 단 咳嗽만 보고 止咳시키기만 하면 안된다.

咳嗽은 一種의 祛邪外達하는 生理反射이므로 반드시 原因을 찾아서 治療해야 한다. 咳嗽은 서로 다른 병의 共通된 症狀이므로 반드시 辨證과 辨病을 結合하여 (例 肺結核에서 殺菌劑와 併用, 肺癌에서 抗癌劑와 併用) 治療해야 한다.